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추수감사주일예배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감사하는 성도여(찬306/새587장)

기도 Prayer ..... All together 다같이

1부/박재문 집사 2부/박호성 장로 3부/송용훈 집사 4부/나승호

찬양(1부) Anthem .....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추수감사 찬가(작곡 김명환)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 4부/요한복음 2:1-11 ..... All together 다같이

말씀 Message ..... 1, 2, 3, 4부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얼굴 붉힌 돌항아리 물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갈보리 산 위에(찬135/새150장 2, 3절)

성찬식 Communion ..... All together 다같이

헌금 특송(2부) Offering Song ..... Barclay Trio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갈보리 산 위에(찬135/새150장 4절)

*축도 Benediction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한미 목회자 포럼

Korean American Pastor's Forum

이번 한국 일정 중에 한미 목회자 포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서로 질의 응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60대 전 후반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르익은 사역들을 나누며 서로 도전을 주고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나눕니다.

어느 교회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머릿속에 찐하게 남는 표어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은 훨씬 깊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인사는 고독사가 많은 외로운 현대사회를 살리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사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진심을 전하는 관심 있는 인사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침을 튀기며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부천에 있는 한 교회는 매주 주보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의 명단이 오르는데, 매주 평균 약200명의 성도의 이름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베델교회는 매주 평균 10가정이라고 자랑하려다가, 깨갱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 년에 한번 새 생명 잔치를 하며 전도에 집중하지만, 이 교회는 전도 집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온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다고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천원 식당을 개업해서 섬깁니다. 요즘 짜장면도 6천원인데, 잘 차린 밥상을 75세 이상 어른에게는 천원, 60-74세까지는 7000원 그리고 60세 미만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아 시내 한복판에 식당을 내고, 교인중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섬기는데, 식당 이름이 "행복한 식당"입니다. 이 사역을 듣는 모든 목사님이 행복해졌고, 입에는 군침이 돌았습니다. 내년에 저는 꼭 가서 7000원 내고 밥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합니다.

또 한 교회는 출석 교인 수가 등록 교인 수보다 많은 교회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 전략은 아이들 전도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엄마 아빠들이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자 중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나온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차 온 부모님들이 결국 덩달아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맘에 맞는 사역팀을 찾아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결코 손님이 아닌 주인같이 교회를 섬기도록 등록 당일부터 봉사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얼마나 역동적인 교회들이 많던지 감사만 넘칩니다. 이번 한미목회자 포럼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한 베델교회의 사역은 [베델 클레시컬 아카데미]였습니다. 역시 사람을 탐하는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결국 인재 양성이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소망이라며, 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는 일을 베델이 했다고 부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One of the events scheduled into my Korea trip was a Korean American Pastor's Forum. It was a beneficial time of sharing as each pastor introduced his church followed by question and answer time. Most pastors were round the age of 60 and all of them had ministries that were well and mature. We shared our ministries and challenged each other. I will share what impressed me the most from the forum.

One of the churches has a slogan that says, "Greeting others well is enough to live well." The slogan seemed a bit cheesy, but it really stayed with me. The meaning behind the slogan was much deeper. Christian's greeting of warmth and concern has the strength to give life to bitter and lonely world. Most of our greetings usually do not exceed that of simple acknowledgement to a stranger on an elevator. I still vividly remember this pastor who spoke passionately about how greeting with sincerity and genuine concern could bring about many miracles.

And, one church in Bu-Chun city includes a list of weekly registered newcomers on their Sunday bulletins. Their weekly list averages 200 new members. I was about to proudly share that we have average of 10 families each week, but I couldn't^^. This church's pastor was filled with joy. He shared how his congregation is passionate about salvation. They don't need any special evangelism rallies. Our church, on the other hand, focuses on evangelism once a year with our New Life Celebration. This church serves elderly people by operating one dollar restaurant. Jjajangmyun nowadays costs about $6. Their beautiful meal is available for only $1 to those that are over 75 years and older, $7 to those that are 60-74 years old. They don't accept customers that are younger than 60 years old. They obtained a business permit, opened up a restaurant in midtown. Servers are volunteers from the church. The restaurant's name is "Joyful Restaurant". Every pastor listening to this became joyful, and their mouths watered. I am definitely planning to go to that restaurant next year and buy the meal for $7.

Another church was introduced as a church that has greater number of weekly attendees than the registered church members. The secret to this was in evangelizing to children. When children come to church, they bring their mom and dad with them. Large number of visitors are the parents of children who have been evangelized. These parents eventually become church members. As soon as they register, they are immediately plugged in to serve in a ministry that they like. They begin serving on the very first day of registration with a sense of church ownership, and no longer a visitor.

Although we hear Korean churches are struggling, I was filled with gratitude, realizing that there are great many active churches. The pastors were most envious of Bethel Church over [Bethel Classical Academy]. All the pastors, who look for good people, agreed that our only hope of changing the future is to develop and raise up our own people. They were envious that Bethel is doing something that they couldn't even fathom. I can only thank God.

주일 1-4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추수감사주일설교 - 요한복음 2:1-11

얼굴 붉힌 돌항아리 물

적용하기

1.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첫 표적(sign)입니다. 1절의 "사흘째 되던 날"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3일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참고: 요 1:35-50).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 호칭한 의미를 생각하며 답해 봅시다. (4절)

2. 공생애 첫 기적을 향한 예수님의 첫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6-7절)

3.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맛 본 자들이 극찬을 합니다. 그 비밀을 누가 알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나요?(9-10절)

4. 예수님의 첫 기적이 결혼식 잔치집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11절) 입니다. 주님을 만난 첫 현장의 경험은 맹물이 포도주 되고, 무의미가 보람있는 가치가 되고, 무표정이 기쁨이 되는 경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난 '얼굴 붉힌'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

■ **적용찬양:** 갈보리 산 위에(찬135/새150장)

추수감사절 특집: 감사 메시지

내 안의 감사가 또 다른 기적을…

만남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불교 신자셨던 엄마지만, 종교는 자유라고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났고, 결혼할 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시댁 식구, 좋은 교회, 믿음의 교역자들의 만남을 통해 신앙 성장이 있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친구, 사랑스러운 세 자녀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며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찾는 이 모든 만남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상희 집사

카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피를 배워 바리스타가 되는 줄 알았으나 설거지만 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모습과 환한 낯빛으로 섬기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며 매주 은혜받습니다.

박남규 집사

한 해 동안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베델 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두 딸이 교회와 학교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지학 집사

마음 깊은 곳 돌짝밭, 가시밭을 기경하시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 심령에 불씨를 지펴주시어 제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현진 권사

Thank you Lord! 6시간 뇌수술 받고 깨어나며 회복실에서 외친 첫마디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은 옆에 없었고 의료진들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희연 권사

올해 한 해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님과의 이별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많이 가슴앓이도 했지만, 첫 손녀를 안겨주심으로 뼝 뚫린 가슴 한쪽 편을 새 생명으로 채워주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선물이었는지요.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사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로다"

윤광미 권사

올해는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바인에 온 지 일 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과 기대와 또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일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찬양을 소리높여 올려드립니다!

이미옥 성도

멀리 뉴욕에서 혼자 공부하는 대학생 딸을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베델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남편의 직장을 얼바인에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윤경 집사

몇 달 전 미국으로 와 익숙한 것, 경험한 것, 편안한 것, 내 뜻대로 가능했던 것, 언어의 어려움 등 새로운 환경에 정착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감사의 도구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임지민 성도

다른 어느해 보다 일도 많고 바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driving 하시며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 나를 연단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효정 집사

나의 모든 걸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버틸 힘이 없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심을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시고 사랑한다고 품에 안게 하시며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퍼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향기로 향기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은영 집사

팬데믹에서 회복되며 다시 활짝 열린 태국의 선교지를 베델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주안에서 하나 된 태국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호경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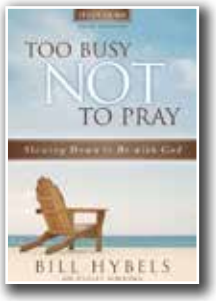
설레는 새벽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때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 감동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셀모임을 다시 드리게 하시고, 가족 모두 주일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라영 집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되는 책 제목 혹은 신앙 위인들의 인용구, 찬양을 정리하여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Again" 나눕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빌 하이벨스, 도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2022년 8월 14일 설교, 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성대로라면 삶이 바쁘면 기도를 건너뛰기 마련입니다. 다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이 책의 제목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발등의 불을 끄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미루지 맙시다.

C. S. Lewis, 도서 "순전한 기독교"
〈2020년 5월 17일 설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마음에 새겨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 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의 삶에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지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나 신념은 없습니다.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에서, 믿음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이 사실상 몇 명이나 될까요? 그저, 어쩌다가 믿음에서 떠내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하루하루의 삶에 떠밀려 정신없이 살다가 아차 하는 순간, 영적인 일에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어쩌다가, 믿음에서 떠내려가게 (simply drift away)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성경 주석"
〈2022년 6월 5일 설교, 복수復讐 말고, 복수複數로〉

"예수님은 무분별한 기부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선행이 받는 사람의 게으름을 부추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선행을 받는 사람이 게으르게 된다고 해도,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사기성 거지 여러 명을 돕는 것이 더 낫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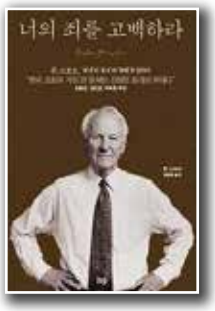
자격론을 논하며 도움을 베풀 만한 대상을 분별하는 그 마음 중에, 조금도 손해를 보기 싫어서 계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실천합시다.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2022년 6월 19일 설교, 말로 하는 사랑〉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하얗게 타버린 연탄재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불에 활활 탔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믿음의 연료를 가득, full tank로 채워 본 적이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순종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하며 뜨겁게 나 자신을 불태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납득되지 않으면 그냥 흘려 넘겨 버리며 내 상식의 수준에서만 신앙이 머무르지는 않습니까? 연탄이 발갛게 타오르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나아가는 베델 교인이 됩시다.

존 스토트, "너의 죄를 고백하라"
〈2022년 8월 21일 설교, 용서의 문을 열어라〉



"죄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건강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요건이다".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성이라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며 "죄-고백-용서"를 "필수불가결한 트리오 (an inseparable trio)"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죄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지만, 또 죄의 해결책, 즉 용서를 제공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죄의 고백 (confession)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 33:3)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기를, 그래서 항상 불편하게 지니고 다니던 거추장스러운 미움의 풍선들을 날려버리는 베델 교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베델 뉴스팀

한국 학교

꼼지락꼼지락, 찐득찐득

우리들의 미래이고 꿈이며 희망인 베델 한국학교 어린 친구들에게 오랜 전통이며 아름다운 명절을 알리고 미국 안에 살면서도 우리 문화를 전하기 위해 베델 한국학교 문화 수업과정에 요리 수업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 음식 중에 가장 친숙한 떡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경 문화가 주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수확을 마친 추수 후에는 햅쌀과 잡곡을 사용하여 온 가족이 모여 떡을 만들었는데 특히 송편을 많이 빚어서 추석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떡은 우리 생활 속에서 친숙해져서 아기가 태어나 백일, 돌을 맞이할 때, 이사나 개업식 때,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도, 한 권의 책을 마치는 배움의 길에도 오래전에는 '책거리'라 하여 떡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찜통에 찌고, 삶고, 굽고, 치고, 지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그림으로라도 보여주었고, 감사와 화합을 의미하며 만들었던 송편을 직접 만지며 송편 소를 넣고 솜씨대로 빚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예뻤습니다. 엄마들이 마켓이나 떡집에서 사다 주는 떡을 먹기만 했던 어린이들이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직접 만든 송편은 집으로 가져가 가족이 함께 맛보도록 하고,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낸 친구들에게는 송편을 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중 언어를 배우려는 초롱초롱한 눈빛이 사랑스러워 시작한 두 시간 요리 수업이 저희 아이들과 한국에서 살면 서 함께했던 추억도 되살아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미국문화와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지만 자랑스런운 대한민국의 꿈나무들로 조국을 알고 배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뛰어난 언어인 한국어를 잘 익히고 사용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길 바라며 작은 것이지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국학교가 더 든든히 발전해 나가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델 한국 학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도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김경자 권사(강사)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에는 송편을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더 어렸을 땐 할머니, 할아버지와 송편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저는 베델 한국학교를 다녀서 친구들과 즐겁게 송편을 만들 수 있었어요. 베델 한국학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재인(학생)

한국의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학교에서 송편 만들기 요리 수업을 했습니다. 떡을 만들기 전에 강사 권사님께서 떡에 대한 이야기와 만드는 법을 알려 주셔서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찐득찐득한 떡 반죽을 만질 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손에 묻은 떡 반죽을 떼어서 먹으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동안 마트에서 사서만 먹어보았던 송편을 직접 만들어 본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추수의 계절, 한국의 추석과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배병헌(학생)

잘 쪄진 송편을 한 입 베어 뭅니다. 찰지면서도 부드러운 맛! 지난 9월 24일, 한국학교에서는 송편을 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멥쌀 가루에 고운 분홍색을 들인 반죽으로 먼저 보름달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검정콩 소를 넣어 빠져나오지 않게 손으로 꾹꾹 누르니 반달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트, 나비, 꽃, 고양이, 비행기 모양의 창의적인 송편도 탄생했습니다. 옹기종기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즐겁게 빚고, 정성껏 만든 송편을 엄마, 아빠에게 주겠다며 각자의 통에 조심스럽게 넣는 모습에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온 명절의 계절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을 통해 집으로 보내진 송편은 '맛있게 잘 쪄서 먹었습니다'라는 부모님들로부터 온 감사의 메세지와 인증샷은 얼마나 즐겁고 좋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호랑이 이야기도 있고, 보름달 앞에 떡을 찧는 옥토기 표현도 있는것으로 보면 한국은 '떡의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쁜 날과 감사의 날에 늘 함께 한 떡, 이런 한국의 떡을 직접 만들어 보는 이번 체험 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 최대 명절인 한가위의 의미를 알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종선 집사(교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헌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3 베델 한국학교 봄학기 모집

베델 한국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2023년 봄학기를 맞아하여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 한국학교는 '예수 사랑, 나라 사랑, 한글 사랑, 이웃 사랑'을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이 한미의 이중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나아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성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봄학기 수업은 큐티와 한국어 시간, 그리고 한국문화를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로 시작해, 레벨에 맞추어 준비된 한국어 수업, 그리고 한국 역사, 인물, 음식, 동요 등의 흥미로운 주제로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국어 수업과 다양한 한국문화 활동을 통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봄학기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기간: 1월 21일–5월 13일(16주, 4월 8일 부활절 휴강)
▶ 수업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 9시–오후 12시 30분(대면 수업)
오후반 1시 30분–3시 30분(비대면 수업)
▶ 수업 내용: 큐티, 한국어, 한국 문화
▶ 대상: 5세 이상부터 중고등 학생(2022년 9월 1일 기준, 킨더 이상)
▶ 등록 방법: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school.bkc.org에서 등록
▶ 등록 마감일: 11월 21일(월)
▶ 등록비: 대면 수업–$310(문화 수업 및 간식 포함), $330(11월 21일 이후)
비대면 수업–$210(문화 수업 포함), $230(11월 21일 이후)
▶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효율적인 학급 편성을 위해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12월) | 11/27: ①부–연규호 ②부–윤영걸 ③부–박지학 ④부–박양아
12/4: ①부–선상균 ②부–변준호 ③부–송석원 ④부–이병천
12/11: ①부–윤주원 ②부–백영만 ③부–김효선 ④부–이유빈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1,12월) | 11/26: 이삼열 12/3: 이동오 12/10: 이완희 12/17: 이상열

강단꽃(11,12월) | 11/20: 성홍숙 11/27: 주정숙, 박정화 12/4: 이종선 12/11: 이자영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송영실(한의과),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정상돈(한의과), 간호사–이혜경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베얀)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헌금봉투는 주보 안에 있으며,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는 "추수감사헌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성찬식** 오늘 주일(20일) 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입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교인은 일회용 성찬기를 본당 로비에서 픽업하시고, 다 사용한 성찬기는 예배당 밖 휴지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오늘(20일) 오후에는 교회 앞마당에서 성도님들의 감사의 사연과 음악이 어울어진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가정별 상품이 있고, 터키 만찬도 준비됩니다. 30분 전에 오셔서 배정된 자리를 확인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장소와 음식 준비로 인해 신청한 분들만 오실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된 방송이 목요일에 방영됩니다.
일시/장소: 11월 20일(주일) 오후 4시 30분, 코트야드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베델 사진관 운영** 오늘 각 예배시간 후 코트야드 포토부스에서 기념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가족과 셀 목장,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감사의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상곤 장로 (949)678-4004

◆ **주차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특별히 봉사자 및 셀모임을 위하여 예배 후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꼭 비전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 주간 수요예배 및 새벽기도 안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입니다. 온가족 큐티를 실천하시기 바라며, 11월 23일 수요예배는 현장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통합하여 저녁 7시에 유투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중 새벽기도회는 추수감사절 24일(목) 당일만 제외하고 평소처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베델기도사역 연합모임 '기도굴리기'** 베델교회 기도사역팀이 기도굴리기를 위해서 연합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로 동역하시는 모든 골방기도팀, 레위기도팀, 두드림 온라인 기도팀, 헵시바기도팀, 치유기도팀 뿐만 아니라, 기도굴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1월 30일(수) 수요예배 후, 비전채플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11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11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Samaritan's Purse Shoe Box 캠페인** 매년 가난 가운데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hoe Box는 교회학교 check in 부스에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준비된 box는 주중에 교회 사무실이나 주일에 같은 장소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10월 30일(주일)-11월 20일(주일)
문의: 최병웅 집사 (714)586-6703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초등부(2, 3부 교사 & 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BYM Jr. High 겨울 수련회를 위한 Sign up** 영어 중등부에서 12월 27일(화)-29일(목)까지 "Flow"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갖습니다. 부서에서 발송한 링크를 참조하셔서 11월 27일(주일)까지 Sign up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Sarah Lee 인턴 (949)402-7049

◆ **정기 제직회** 12월 3일(토) 오전 7시 30분 토요 헵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정기 제직회(임직자 투표, 2023 예산안)로 모입니다.

◆ **베델 MIT 대학 작품 전시** 시니어들을 위한 베델 MIT 대학이 은혜 가운데 종강을 했습니다. 한국화, 한글서예 수업의 작품들을 본당 입구에 전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헌금 내역서** 2022년도 헌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 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위로해 주세요**
故 유한민 목사님(이희선 집사 부친)께서 11월 16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 캠페인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 유미경 권사 ■ **사 진 :**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Thanksgiving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Water in Stone Jar caused Blushing

John 2:1–11

Apply to Life

1. Miracle of the wedding at Cana was the first of Jesus' signs in his public life. "On the third day" in v.1 means that it has been 3 days since he first called on his disciples (Ref: Jo 1:35-50). What is the meaning of this sign at the wedding at Cana? As you answer, think about why Jesus called His mother "Woman~". (v.4)

2. What was Jesus' first command for the first sign of his public life? What is the lesson we learn from this? (vv.6-7)

3. Those who tasted the wine at the banquet hall gave high praises. Who does the Bible record knew the secret?(vv.9-10)

4. There is meaning behind why Jesus's first sign was at a wedding celebration. The result of this sign was that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v.11) Their first experience of Jesus, at the place where they first met, was that water became wine, what was meaningless became worthwhile, and expressionless turned into joy. Share experiences of meeting Jesus that made you 'blush'.

■ **Song in Response:** The Old Rugged Cross(Hymn 135)